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혁신도시 상생협력 지역발전 성장거점으로

### 국민연금 작년 최대 수익률 달성... 소재지 논란 잠재워 전북자치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거버넌스 운영 혁신도시발전위원회 · 상생협의회 · 실무협의회 등 구성

전북혁신도시가 2013년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을 시작으로 2017년 9월  
한국식품연구원까지 13개 공공기관  
의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전북자치  
도,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  
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지  
정학적 위험과 큰 변동성으로 지난  
해 글로벌 투자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  
화, 운용 전문성 강화 등에 힘입어  
전북에서 두 자리 수익률을 달성하  
며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흔들  
기의 대표적 사례로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국민연금공단 수도권  
재이전설을 사전 차단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전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  
면,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의 수익률이 13%를 넘어서며  
출발 이후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  
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발표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1,035조8,000억원에 해당하며, 수  
익금 127조원, 수익률 13.59% 등을 기  
록했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  
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0%, 해  
외채권 8.84%, 대체투자 5.80%의 수  
익률을 보였다.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2017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대체로 양  
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지  
난 2018년과 2022년에는 주요국의  
무역분쟁, 러·우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악세 속에 각각

-0.92%, -8.22%의 마이너스 수익률  
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2022년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이유로 중앙 언론과 정치  
권에서 '수도권 재이전설'에 군불  
을 지피며, 지역사회에 반감을 조성  
한 바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17.6%,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  
14.1%, 미국 캘퍼스(캘리포니아공부  
원 연금) -11.2%, 캐나다 연금투자위  
원회(CPPIB) -5.0%, 일본 공적연금  
(GPF) -4.8% 등 2022년 해외 5대 연  
금 모두 글로벌 증시 한파 탓에 모  
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기금 관계자는 "전북에 와서 최  
대(2023년), 최악(2022년)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글로벌 경제 여건에  
따라 운영 성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이라는 장소적 특성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연금  
공단을 비롯한 지역에 안착한 이전  
공공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성해 기  
관장급부터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뤄가고  
있다.

도시사 주제로 열리는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 이전기관 9개소, 전북개발  
공사, 전북대학교, 전북연구원, 전  
주상공회의소 등 당연직 16명에 각  
분야 전문가 위촉직 4명 등 총 20명  
으로 구성됐다.

부기관장급 협의체인 혁신도시 상  
생협의회는 도와 이전기관 13개소,  
도 교육청, 경찰청, 전주시, 완주군  
등으로 구성됐으며, 최근에는 지난  
3월 14일 회의가 소집된 바 있다.  
이밖에도 실무협의회인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지역 인재채용 실무협  
의회 등도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북혁신  
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  
재 채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  
고, 가족동반으로 전입한 인구 비율  
의 경우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나는 등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에 안착한 모습이다.

작년 12월 기준 이전 공공기관에  
는 총 5,883명이 전북으로 전입해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혁  
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전입 인구  
5,883명 중 가족동반 이주 인원은  
4,521명이며, 비율은 76.7%로 전국 평  
균 68.8%(보다 6.9% 높고 부산(82.3%),  
제주(82.1%)에 이어 3번째로 높다.

전북혁신도시는 당초 2만8,837명  
의 정주 인구를 계획으로 지난 2007  
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1조5,229  
억원을 들여 여의도 3.4배, 축구장  
1,380개 크기인 985만2,000㎡(298만  
평) 규모로 조성됐다.

공동주택 16개 단지 9,236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2017년 2만6,519명  
2018년 2만6,951명 등 해마다 들어  
지난해 2만8,986명이 이곳 혁신도시  
에 거주하고 있다.

어린이집 25개소, 유치원 6개소,  
초·중·고 5개소 등 교육시설과  
전주북한문화센터, 라온체육센터,  
공주팔미도서관, 다담센터 등 문화  
체육시설을 갖추었으며, 국토부 공  
모를 통해 혁신융합캠퍼스를 유치  
하여 기존대학교에 4개 학과를 이  
전하고 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  
국장은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기  
금운용본부가 최대 수익률을 기록하  
는 등 소재지 논란이 근거 없는 정  
치적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증했다."며, "지역에 안착한 이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산업육성, 지역인재 채  
용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지난달 31일 서거석 교육감, 정현을 익산시장, 김정수·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특별기획전 '미래모빌리티' 개막식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에서 열렸다.

##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모빌리티'

### 전북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 특별기획전 '미래모빌리티' 개최 미래사회 가상 체험 기회 제공... 12월 6일까지 현장 접수로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교육원이  
미래모빌리티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  
한 전시를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거석 교  
육감, 정현을 익산시장, 김정수·김슬  
지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특별기획전 '미래모빌  
리티' 개막식을 개최했다.

모빌리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의 개  
념을 넘어 사람과 사물의 이동을 빠르  
고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를 포함  
하는 의미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융합적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  
양한 이동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변화될 미래  
사회를 상상해보고, 가상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날 비키의 등장에서부터 하이퍼루  
프 탑승까지 모빌리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모빌리티의 역사',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서울역  
에서 익산역까지 '하이퍼루트 탑승'  
등을 선보였다.

또 '스마트모빌리티시티'에서는 스  
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로 연결된 미  
래도시의 모습을 전시했다.

특히 '내가 상상하는 미래 모빌리  
티'에서는 참신한 미래모빌리티 그림  
을 팝업으로 제작, 전시에 직접 참여  
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VR자율주행차 체험, 드론  
조종, 4종 보행로봇 체험 등과 전기수  
직이착륙기(eVTOL) 등 다양한 전시가

마련됐다.

한편 이번 특별기획전은 오는 12월 6  
일까지 전시체험관 1층 특별기획실  
에서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매일 6  
시(각 회당 45분 체험) 현장 접수로  
운영된다. 10명 이상 단체의 경우 과  
학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현정 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도내 학생들이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상  
상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미래모빌리티 전  
시에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  
들이 직접 전시장을 찾아 체험하고 느  
끼며, 미래모빌리티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사회를 변화시킬지 상상해보  
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했  
다. /김은성 기자

## 그림책 즐기며 꿈 키우다...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 개막

### 23일까지 팔복예술공장 등서

전주에서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를  
만나고 그림책을 즐기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도서전시회가 시작됐다.

전주시는 지난달 31일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장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권운덕 작가와 필립 베히터 작가 등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출판사 대표,


관계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  
한 가운데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  
전' 개막식을 가졌다.

이날 개막식은 △개막공연 △개회사  
△격려사 및 축사 △초청작가 인사(권  
운덕·필립 베히터) △제1회 그림책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서는 상업 출판  
을 하지 않은 신인 작가를 대상으로

한국그림책출판협회가 주최하고 전주  
시가 후원하는 '제1회 그림책 공모전'  
의 시상식이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도서전은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약  
3주간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  
관, 지역서점 일원에서 그림책을 주  
제 로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  
정이다. /김재훈 기자



## 고향사랑기부제 진안에

###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에 사랑하는 마음을 보내세요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지역특산물 등 진안의 마음을 담은 답례품 지급

- 기부액의 30%
- 진안군 답례품 : 돼지고기, 홍삼, 수삼(인삼), 사과, 진안홍삼스파 이용권, 승마체험 이용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4종

문의 : 진안군청 기획홍보실 인구활력팀 063-430-2830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 분 16.5% 추가 공제
-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단체 기부 불가)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기부금납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시스템)
- 오프라인 : NH농협은행 창구(전국 모든 지점)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받아주세요.